

건강 칼럼

건강 100세 수명 위협하는 파킨슨병

치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파킨슨병의 원인 및 진단법

파킨슨병은 신경 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흑색질'이라는 뇌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도파민 신경세포가 70% 이상 손상돼 증상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신경학적 검사, 뇌 MRI, PET-CT를 통해 임상적 추정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뇌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릴 수 있다.

최근에는 도파민의 전달체를 볼 수 있는 특수한 PET 등을 통해서 파킨슨병의 진단율을 높이고, 비전

형적 파킨슨증후군을 구분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각각의 증상에 따른 자율 신경계검사와 수면다원검사, 인지 기능검사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해 진단을 내린다.

▲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느린 행동, 경직, 불안정한 자세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떨림 등이 있다.

이들 증상 중 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떨림'으로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보다 가만히 안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떨림 증상의 경우 약 70%의 환자에서 손과 다리 어느 한쪽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수면 중에는 없어진다.

느린 행동은 말 그대로 몸의 동작이 느려지는 것을 말한다.

움직임은 있으나 느리게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 되지 않거나 시작이 되더라도 매우 느리고 동작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파킨슨병은 보행할 때도 특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서 있을 때 등이 구부정하게 굽고 팔꿈치가 약간 굽어 있는 형태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행할 때 한쪽 팔은 앞뒤로 움직이는데 다른 팔은 몸쪽에 붙어서 걸거나 양쪽 팔 모두를 몸에 붙이고 걷는 경우가 있다.

파킨슨병 환자 10명 중 9명에게서 후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뇌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이 후각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은 초기 증상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고 뇌경색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주변에서 세심한 관찰과 진단이 필요하다.

▲ 파킨슨병의 치료

일부에서는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데, 환자의 약물 반응 정도와 나이, 증상의 위치 등을 감안해 정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신경과 전문가가 수술을 해도 되는지,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경과는 물론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의 전문가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수술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이다. 이는 쇄골 부근에 극소형의 전기 자극장치를 삽입하고 머리에 약 2cm 정도의 구멍을 낸 후 전기자극기에 연결된 미세한 전선을 통해 뇌심부를 자극하는 것이다.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의 병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는 시술되면 최소 5년, 중점시 10년까지 유지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

그러나 증상이 의심될 때 조기 진단으로 증상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조기 치료는 가능하다.

일단 파킨슨병이 발병하면 환자의 운동성과 비운동성, 그리고 내과 질환이나 다른 신경계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여 뇌의 퇴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사설

전북도, 발전 프로젝트에 힘 실어야

전북도는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겠다. 전북도는 연초에 야심차게 선언한 게 있다. "2018년 정도 천년을 맞아 미래를 견인할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게 두 달 반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힘을 실어서 실력 발휘를 보여줘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 GM 공장의 정상화와 연극대확원 설립 등 지역의 3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병도 정무수석을 면담했기에 하는 말이다.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소식들이 연거푸 당도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은 전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뛰어야 할 때이다. 지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 지력이 없다면 전북도의 자존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전북의 발전이 전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말해야겠다. 그것도 출기차게 상기시켜야 되겠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제류 찾기를 선언했지만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셀프 아심과는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서는 예기치 않게 당혹스러운 사태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전북도가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서 돌고구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그 돌고구를 여는 것이 어려워도 전북도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지역의 낙후는 도민의 수가 많고 있는 것도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날보다 더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나이든 기성 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중반에는 거주 인구가 250만이 넘었었다고 그런데 50여 년이 흐른 지금은 18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이지 낙후라도 이런 낙후가 없다. 수도권에 치이고 충청권에 밀리고 영남권과 비교해 후대접을 당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뛰는 모습을 거듭 거듭 보여줘야만 한다.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최악이라는데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다시 또 공급하다. 최근에 일자리와 관련해 뜨거운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 최악이다. 관청은 일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정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만 늘고 있으니 안타까운 세월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우리 전북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전북도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공급하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이나 시간제 취업자들이 바라보는 바는 한결같다. 정규 일자리와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한결같은 기다림이 되고 있다. 군산 현대조선의 가동 중단과 GM 폐쇄 사태와 맞물려 전북도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근로자의 절반 가깝게 비정규직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런데 그 고민의 문제는 옛날이 아

니라 오늘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나이지기 보다는 나빠지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오늘을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취직 자리 구하기가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 지역의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궁구해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래서 지역의 실업률이 11개월만에 안 좋은 기록을 갱신했을 터이다. 전북도는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각 시군 지자체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도내 젊은이를 태반은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있다는 호소이다. 젊은이들의 곁은 정서를 전북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청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독자재언

나날이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똑똑하게 대처하자

2017년 5월에서 7월, 3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86억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방송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 경찰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진화되고, 과감해져, 약 차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줄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피해 대상 또한 어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나와 혹은 우리가족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간과해서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 막을 수는 없는가? 현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사기 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피싱 사기꾼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이다. 한마디로,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사해에 따라 컴퓨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갈죄가 적용된다. 피싱 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을 사칭한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빌걸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창에 나타나게 하여 직접 인출 및 이

체를 하도록 한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여 직접 인출을 시도할 뿐 아니라 대표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걸거나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는 보이스피싱 체험관과 피해사례, 대처방법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목소리"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이목소리는 수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로서 해당 걸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께는 1천만원의 포상금까지 제공된다. 이외에도 우리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를 일절응대하지 않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을 의

심해 봐야 한다. 자녀나 가족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평소 가족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개인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나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진위 확인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그들이 던진 미끼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스피싱지킴이와 함께 똑똑하게 그들에게 대처해달라. 신화선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